

지금 미국에선 왜 ‘불교’인가?

e 해외불교칼럼

1960년대 미국 내 불교도는 고작 20만 명 정도였으며, 그 중 일부는 불교 서적이거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여행 등을 통해 우연히 이 이질적인 신앙에 접했다. 그러나 미국 불교도의 절반 남짓은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들어온 화와 이 이민자의 2, 3세대 청소년층이었다. 현재 미국 불교도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 인구통계국에서 개인별 종교의 공식집계를 중지한 터라, 다만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200~300만명으로 추산하는바, 이는 약 40년간 약 10배의 증가세를 뜻한다. 이런 증가 추세는 대체로 아시아불교지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것이다. 비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상당수가 불교도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불교철학에 심취해 자신의 영성개발을 위해 각종 불서들을 숙독하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다. <미국과 불교의 만남(The American Encounter of Buddhism)>의 저자이자 하버드와 스탠퍼드 출신의 종교학계 석학인 탐 트루드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베개머리 불제자(Nightstand Buddhist)’. 즉, 불교적 공감대를 지닌 ‘나 홀로’ 불제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미 1000만을 훨씬 웃돈다. 한편 무엇이 이처럼 불교를 향한 열망의 불길을 지피는 것일까? 또한 불교적 성장환경과 전혀 무관한 수천만의 미국인들이 이제는 절대다수 근세주 등과의 종속적 관계지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아변화’를 통해 근본 실체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불교에 이끌리는 이 현상은 여찌 설명되어야 하나? 이제 수많은 미국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의 발상마저 회의적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불교에 이끌리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그러나 기존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불제자로 개종하는 미국인들은 단언한다. 즉, 불교를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닦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아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는 불교는 그 형식이 여 많은 매일수행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참선과 염불, 그리고 법회참여 등 자기수행에 정진하여 각자 영성적 변화를 체득한다는 목시적인 상호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티베트불교는 거듭되는 생을 거치며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선불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우침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둘은 공히 영적인 스승을 모시지만, 위빠사나, 곧 내관 명상의 경우는 굳이 사제 관계나 소속 종파에 연연하지 않고 나 홀로 수행을 한다. 이 모든 형태의 불교는 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 사이에서 일차적으로 급성장해* 역자 주 ; 캐투어와 앨런 긴즈버그 등 저항시시층 비

MTV 등 끊임없는 볼거리를 사이에서 성장한 이들 세대에게 근엄한 참선이나 위빠사나 등은 답답하고 단순롭기만 하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의 형상을 보여 줌으로써 심미적인 장엄함마저 곁들여준다. 티베트불교의 가르침과 조형물들은 알핏 보건데 될 다듬어지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현대 미국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고도로 정교하게 구성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연유가 어땠든 티베트불교 붐은 당분간 지속되었으나 앞으로 50년 이내에 전혀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이 등장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 불교의 핵심이 제일세대 개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곧 전통적인 아시아 불교와 모든 ‘새로운’ 형식을 가르는 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종교집단에서나 신규 개종자들은 전통적인 도식에서 벗어난 ‘튀는 집단’, 즉 예측불허의 구성원들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새로 접한 종교를 자신들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알게 모르게 재해석한다. 게다가 개종자 특유의 과열과 경망함으로 인해 장차 그들이 되레 앞장서 비난할 수도 있는 문제성들을 놓치기도 한다. 티베트불교의 입장도 다를 바 없다. 티베트불교의 탄탄하고 정교한 교리적인 로드맵이, 어쩌면 티베트교단 내에 질기게 죽어있고 앉은 서열체제에 대한 개종자들의 불만과 저항에 처어, 쪼들려 구겨질 수도 있다. 또한 대개의 종교가 그렇듯, 티베트불교 역시 여성화위를 용인함으로써 결국 페미니즘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깨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미국에 새롭게 이식된 형태의 불교라는 믿음은 바이흐르 제2, 제3세대 들어오고 있다. 모든 지어진 바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제행무상의 불교기본교의에 비추어, 이제 불교를 맞이할 미국인들 장래 또한 그 과거만이나 현란한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가없이 펼쳐 가리다.

편역/성취스님 (출처:Buddha Sasana 재단 홈페이지)

젠 내티어(Jan Nattier)
하버드대학서 종교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인디아나 대학 종교학과 교수.

불교인구 40년간 10배 증가 젊은층에선 티베트불교 ‘붐’

트세대에서 자생한 이른바 비트너 부디즘을 보였다. 그 이후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이제 이 미 성인이 된 이들 베이비부머들 사이에는 위빠사나 수행단체와 일부 선불교 등이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심대와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티베트불교에 심취한다.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인 교매한 품격과 역동적 역할, 그리고 티베트를 원초적인 이상향으로 바라보는 대중적 기대치가 그 기본인이다. 게다가 ‘쿤둔’과 ‘티베트에서의 절년’ 등 티베트 소재의 영화들이 거꾸 일반대중의 시선을 불교로 리처드 기어, 비스티 보이즈의 앨범 요크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하여 티베트불교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저명한 미국인들 중 그와 다른 형태의 불교를 선택하는 불제자도 많다. 그런데 왜 미국의 청소년세대는 굳이 티베트불교로 개종하는 것일까? 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티베트 불교 특유의 심미적 요소다. 사람들은 어느 믿음을 택하든 그 교리나 수행법만 아니라, 종교적 시각조형물 등을 통해 평안함을 얻는다.

과 참선 등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가에 소재한 동 대학본부 건물의 계단에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실시된 이 철야기도행사에는 지도법사와 불자 임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다수 참여하여 최근 발생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비폭력적인 반정부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들과 그 선봉에 나섰던 불교 승려들의 송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또한 그들은 산화에 앞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로서의 무한한 자비심을 발휘해야 할 것임을 새로이 다짐했다.



미얀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MIT 불교학생회.

아리들 중 하나로 월례 정규 스케줄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불경스터디 그룹, 토론 및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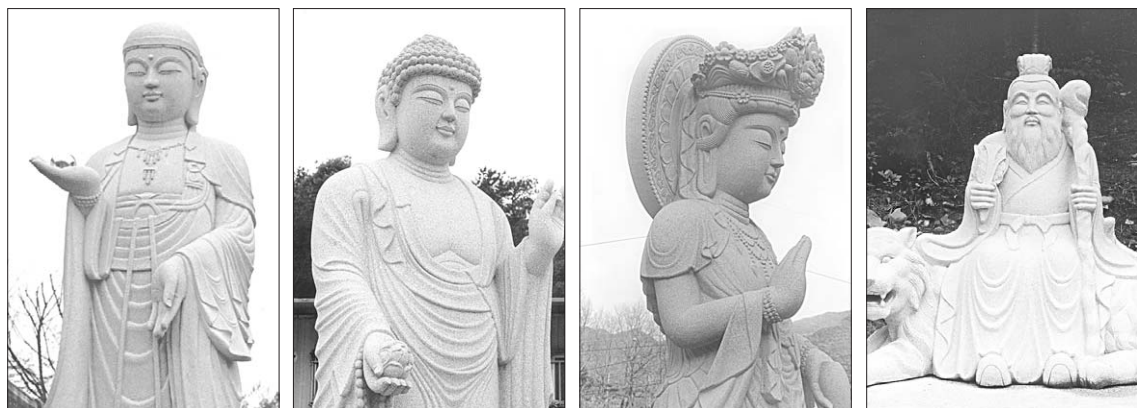
“미얀마 평화를 기원합니다”

MIT 불교학생회, 철야침묵기도회

최근 미얀마 참사가 전 세계적 분노와 항의를 촉발한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불교 학생회인 MIT 프라즈노피아 (Prainopya)에서도 지난 3일 미얀마 평화를 위한 철야침묵기도회를 개최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하는 프라즈나, 그리고 방편을 뜻하는 우파야를 합성한 이름인 이 불교학생회는 미국 각 대학의 수많은 불교학생 등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노래로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

월드★불심도★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급년 초 라틴계 종합엔터테인먼트인 보이 라디오는 리키 마틴(Ricky Martin)이 수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보도했다. 그는 처음 불교와 만났을 때는 불상이 마치 부처이나 우상처럼 여겨졌으나 얼마 전부터 그 불상을 손에 꼭 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행언이 온몸으로 따스하게 퍼져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팔팔치는 물론 남미 전역에 걸쳐 십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온 리키 마틴은 뛰어난 외모와 잘 가꿔진 체격, 그리고 다재다능한 전부터 소질을 고루 지닌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심리학자인 아버지와 회계사인 어머니를 둔 그는 1981년 카리브해의 미국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거기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찍부터 끼를 보인 그는 이미 여섯 살 때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했고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고 학교에서는 연극에도 출연했다. 그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과 연기지도도를 받은 그는 열두 살이 되던 해 정식 오디션을 거쳐 보컬

밴드 메누도에 합류 밴드 메누도에 합류 했다. 그 후 5년동안 리드 싱어로서 그룹이 국제무대에서 선 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는데 주역을 했다.

메누도에서 자리를 굳힌 그는 1989년 그룹을 떠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고교 정규과정을 마쳤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멕시코로 들어가 예전에 함께 활동하던 메누도의 멤버 중 하나인 로비 로사와 함께 만든 작곡들을 모아 데뷔 앨범을 냈는데 라틴음악차트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다. 이처럼 순조로운 재기에 이어 그 후에도 그 둘은 줄곧 공동으로 작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2년 뒤에 ‘날 사랑했어(Me Amaral)’로 남미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준수한 용모와 음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그는 라틴뮤지계를 한 손에 거머쥔 한편, 명연기자로서 멕시코 영화계를 주름잡기도 했다.

그가 최초로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취입한 앨범 ‘리키 마틴’은 1999년 봄에 출시됐다. 그 중 특히 ‘미친 삶을 살며(Livin' la Vida Loca)’와 ‘그녀는 나의 모든이었어(She's All I Ever Had)’ 등 싱글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순식간에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급부상했다.

그 후로 ‘소리를 타고(Sound Loaded)’를 발표하고, 2001년에는 다시 스페인어로 취입한 ‘역사(La Historia)’, 2003년에는 ‘침묵의 영혼들(Almas del

Silencio)’ 등이 출시하자마자 거꾸 히트를 쳤으며, 2005년 ‘살(Life)’을 취입하면서 다시 영어 팝으로 선회를 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새 앨범인 ‘전자악기를 뺀 음악텔레비전(MTV Unplugged)’으로 라틴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너의 추억(Tu Recuerdo)’은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음반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이처럼 그는 화려하고 거침없는 연예 커리어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그는 두 살 때 부모

가 이혼하여 거의 편 모 슬하에서 힘들고 외로운 유아기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그 동안 재혼을 하여 얻은 아이 셋을 데리고 다시 나타난 아버지와 재결합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극도의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그가 할리우드 불교계의 거목인 리처드 기어나 키아누 리브스, 올랜도 블룸, 샤론 스톤, 티나 터너,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의 앨범 요크 등처럼 목실한 불교수행자의 길을 택할지는 알 수 없다. 아니면 해리스 포드나 마이클 스티미, 또는 제니퍼 로페즈 등처럼 늘 마음속 깊이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들의 각자 택하는 길이 어떠한 것 다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곳은 하나, 바로 고운 삶일 따름이다.

그 무엇보다 마땅히 가르치고 해야 할 보아,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고운 길이라면 부디 그 가르침을 믿고 매달려 그대의 길잡이로 삼을 지라

whatsoever, after due examination and analysis, you find to be kind, conducive to the good and welfare of all beings - believe and cling to that doctrine, and take it as your guide.

- the Buddha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할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 소송은 빙의되어 이른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향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천도제) 전문 기도

-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찾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애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며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진건
- 친견인연 공력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사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고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행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목관세음 보살도’와 달마존사도, 족자 중 1점 택일
-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존사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창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김병룡)